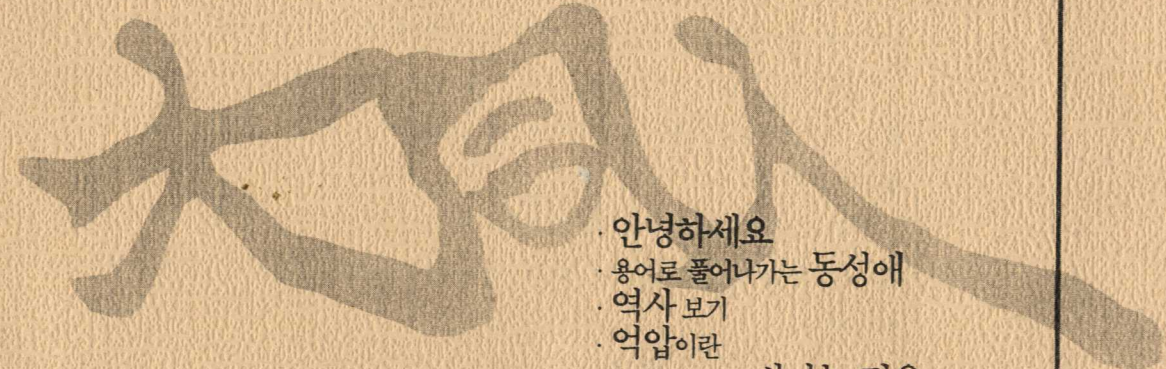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A11	38

97년 겨울

대학동성애자 인권연합

소식지1호(교육용)



- 안녕하세요
- 용어로 풀어나가는 동성애
- 역사 보기
- 억압이란
- 동성애자로서 산다는 것은
- 분리주의에 대해서
- 참고
- 가입 안내, 소개
- 대동인 설립 발의문

발행인: 양지용
 발행일: 1997년 11월 3일

자유 모든 대학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하여

- * 대동인은 전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성애자들의 조직입니다. 대동인은 모든 대학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친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대동인은 모든 동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부가 없는 대학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동성애자의 가입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 * 대동인은 지부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의 연락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동인은 자신이 생활하는 대학에 대동인의 지부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지원합니다.
- * 대동인의 모든 회원의 커밍아웃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연락처: 217-0609 / 서울특별시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97호 110-600상근 시간은 매일 오후 7-10시입니다. (휴일 없음)

모든 대학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하여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모든 대학 동성애자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하여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성애자로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하였고, 세상은 우리의 존재마저도 부정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이들이 이 세상에는 무수히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이상한 존재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무수한 동성애자들이 이 세상의 억압과 소외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직장에는 여전히 어떠한 표현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수한 동성애자 벗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바로 죽어간 동성애자들과, 숨죽인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여전히 이 사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이 모두를 묶고 있는, 그리고 묶어 두려는 것들을 없애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없이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내세울 수 있는, 동성애자라는 이름이 어떠한 억압적인 의미도 지니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 우리의 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단체가 만들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활동하는 공간인 대학에 동성애자들의 공동체, 또는 연결망을 만들자는 것이고, 둘째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 단일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들은 친목까지를 담보해 줄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정된 모든 것들에 대해 '아니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대표 양지용

환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교육이라고 했지만,
과연 우리가 여러분을 교육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풀어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다 보면, 혼자 고민할 때보다 더 쉽게 해결책이 보일 테니까요.
함께 지내면서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겠지만,
함께 슬기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새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게으름과 능력부족으로 부실한 소식을 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교육 프로그램

1. 단체 안내, 환영식

· 일시: 매달 첫째주 토요일 4시
환영인사, 상견례, 책자 및 기념품 증정, 단체 브리핑, 비디오 상영, 환영식

2. 용어로 풀어나가는 동성애, 역사 보기

· 일시: 매달 둘째주 일요일 4시
상견례, 교육, 비디오 상영, 토론, 뒤풀이

3. 억압이란.

· 일시: 매달 셋째주 일요일 4시
상견례, 교육, 비디오 상영, 토론, 뒤풀이

4. 교육 MT(1박 2일)

· 일시: 매달 넷째주 토요일 3시 출발지 집결
분임토론(주제: 동성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놀기

*장소: 사무실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사정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로 풀어나가는 동성애

올바른 용어를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 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동성애

⇒동성애는 말 그대로 동성을 사랑하는 성적 방향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성애는 남성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을 사랑하거나 여성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킨제이 리포트는 '동성애란 자신과 동성의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갖거나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성적 방향성(sexual orientation)' 이라고 동성애를 규정짓고 있습니다.

성적 방향성, 성정체성, 커밍아웃

⇒성적 방향성은 상당히 객관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가 단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만을 뜻할 뿐입니다. 반면, 성정체성은 자신을 '무엇'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을 동성애자로서 완전히 인식한다는 것을 말하며, 그 인식에 따라 자신의 삶을 꾸려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커밍아웃이란 'Coming out of the closet'의 준말로써, 동성애자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긍정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HOMO, LESBIAN, GAY, TRANSGENDERED

⇒'Homo'는 학술적 용어인 'Homosexual'의 준말로

며, 현재는 비하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게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기쁨을 얻는다는 뜻에서 쓰이기 시작한 말로써, 동성애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현재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리스의 사포라는 시인이 살았던 레스보스 섬의 이름에 그 역사적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의 성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전의 'transsexual'이란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의 전환이라는 의미만으로 국한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트랜스젠더란 말로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이반, 퀴어

⇒이반이란 낙원동에서 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가리키기 위해 쓰기 시작한 말입니다. 이반이란 말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퀴어란 말은 원래 '이상한'이란 뜻으로 동성애자를 비롯한 모든 성적소수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SEX-GENDER

⇒섹스란 말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성을 가리키는 말이며, 젠더는 사회적, 문화적 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재는 인간의 성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의해 규정짓는 젠더란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변태, 성도착

⇒변태나 도착이란 말은 '정상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이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정해져 왔고, 그 기준은 '정상-비정상'이 아니라, 사회 체제의 유지에 도움을 주느냐, 그러하지 않느냐에 따라 정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변태나 성도착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성애주의

⇒이성애주의는 이성애라는 하나의 성적 방향성만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을 말합니다. 이는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성적 소수집단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입니다.

동성애 공포증(Homophobia)

⇒동성애 공포증은 이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공포증이란 주로 논리적 배경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즉, 동성애 공포증은 두려워 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동성애를 무작정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AIDS, HIV, 에이즈 공포증, Safe Sex

⇒에이즈는 질병이며, HIV는 에이즈를 발병하게 하는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에이즈를 빌미로 동성애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소외 받은 이들을 더욱 소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성적 지향성

과는 무관합니다. 단지 얼마나 안전한 성행위를 하고 있느냐에 영향을 받을 뿐입니다.

⇒Safe Sex는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성행위를 통해 감염되는 병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성애의 원인, 성적 지향성의 전환, 인구 비율

⇒인간의 성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성애의 원인은 밝혀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의 원인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성애의 원인이 아닌, 동성애의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가 이성애와 다른, 그래서 고쳐져야 할 변태적 성향 정도로 치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성적 지향성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향을 전환시키려는 의학적 노력은 이미 실패했으며, 종교적인 치료 프로그램은 당사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성애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성적 지향성이고, 그러한 이유로 이성애자가 그러하듯 동성애자도 자신의 성향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성향만을 지닌 이는 인구의 4% 정도이며, 이성애 성향만을 지닌 이도 15% 내외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형태든 동성애와 이성애 성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문화권이든 동성애자는 비슷한 비율로 존재합니다.

역사 보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에 대한 역사는 철저히 이성애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동성애는 모든 시대와 사회에서 언제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존재해 왔습니다. 역사를 바로 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자긍심을 드높여 주고, 지난날의 실수에 다시 빠져드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2.1.

동성애란 말, 억압적 의미에서 고안된 동성애란 말이 생겨난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19세기 이전에는 동성애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성애적인 행위들과 인식들은 있었지만, 그것을 동성애라 특정 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동성애와 이성애는 현재처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습다. 이성애와 동성애는 모두 에로스라고 통칭되었으며, 동성애적 행위만이 터부시된 것이 아니라, 이성애적 성행위의 일부까지를 포함한, 성적인 부분에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터부시되어 왔습니다. 말하자면, 현대에 어떤 이가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나면, 자신이 이성을 좋아한다는 것으로 반증하려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는 동성애라는 특정한 성향을 따로 규정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전사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의 버다취족은 자신의 사회적 성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러한 성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

결혼도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성인 남성과 그보다 어린 청년이나 소년과의 사랑이 인정 또는 권장되었으며, 여성들간의 사랑은 대부분 묵인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 사회들이 특정한 관계에 있어서의 동성애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남성중심의 사회에 위악하지 않는 관계들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성인 남성간의 성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같은 맥락으로 여성간의 성행위는 어떠한 사회적인 주목의 대상도 되지 않았습다)

그리스 사회는 특정 관계의 동성애가 용인된 가장 대표적인 시대입니다. 당시 성인남성의 소년에 대한 사랑이 가장 대표적인 사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사회가 이 관계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사회는 기독교 사회입니다.

기독교 사회는 다른 사회들에 비해 동성애에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기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에 과연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수도원 안에서도 동성애 관계가 공공연히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동성애에 배타적인 시각을 취한 것은 기독교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성경에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듯한 구절이 다른 성적 금기들과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한 배타적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동성애를 금기시하기 위해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성경이 동성애를 죄악시한다는 것을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생식과 관계없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 자위행위, 피임 등까지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러한 구절이 생겨난 것은 그것이 쓰여질 당시의 유대와 타민족간의 세력관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큼니다)

동양의 이전 사회들도 서양의 이전 사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다. 동양에서도 동성애를 용인하거나 그를 제도적 측면에서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규약을 정해 놓은 일본의 사무라이나, 한국의 화랑, 남사당,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궁중에서의 행위들은 당시에 동성애에 대한 금기가 특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전 사회들에서 동성애는 대부분 용인되었으며, 일부 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인 수용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구 특히 산업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영국에서부터 본격적인 동성애에 대한 억압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영국에서의 한정적 모습이기는 하지만-남성간의 성행위에 대한 극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 동성애에 대한 억압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19세기는 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특히 성적 소수 집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들의 목적은 그러한 성향들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그의 치료였습니다. 이는 당시에 전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배타적인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동성애자라는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의 창조와 성의 과학으로의 편입 등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사회는 동성애자를 특정한 집단으로 묶어 소외시키기 시작하였고, 성을 과학의 측면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성적 방향성을 완전히 긍정하고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한, 최초의 현대적 동성애자라 할 수 있는 오스카 와일드의 사건은 동성애에 대한 본격적인 억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더욱 견고해지는 억압과 맞물려, 19세기의 끝머리에 서부터 동성애자들의 투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의 히르슈펠트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는 당시의 사회 변혁 운동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문의 법 조항을 만들어 냈으로써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나 혁명이 변질되고 자본주의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면서부터 이 역사는 서서히 잊혀져 가기 시작했고, 나치의 동성애자 학살에 이르러서 동성애 억압은 극에 달합니다.

동성애자 해방의 역사가 잊혀져 감과 함께 억압은 다시 심화되었고, 그에 대한 동성애자들의 반격은 20세기 중반을 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60년대 노동자 운동이 활발해진 시대 상황을 기반으로 동성애자들의 집단적 항거인 스톤월 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 되면서, 동성애자들의 투쟁의 열기도 수그러들었으며, 동성애는 경제체계에 흡수되어 그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시작된 에이즈를 빌미로 한 마녀사냥은 제도 경제체제 내에서의 한정적인 '자유'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격

은 체제 내에 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집단적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판단 때문입니다.

2.2. 동인협이 일본 교토의 동성애자 단체들에 보낸 공문 전문

(우리나라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역사를 이 문건으로 갈음합니다)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이하 동인협이라 약함)는 한국 동성애자 단체들의 연결망으로써 조직된 협의체이며, 1995년에 결성되어 현재 만 2년 동안 활동을 해 왔으며, 소속 단체로는 게이 인권운동 단체인 '친구사이', 레즈비언 인권운동 단체인 '끼리끼리', 통신 하이텔의 '도사모' 와, 대학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등의 단체와 협의체가 있습니다.

96년까지 동인협은, 그 자체로서는 실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아 왔으며, 단순한 협의체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동인협 산하 단체에 소속된 개인들로 구성된 동인협 연대투쟁위원회가 1996년 12월에 시작된, 개악된 노동법, 안기부법의 날치기 통과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결합하면서, 한국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됩니다. 97년 1월 14일에는 서울의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 최초로 레인보우 깃발이 나무였습니다. 노동자 계급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의 표시로써 진행된 1월부터 약 한 달여 동안의 집회들에 연인원 72명의 동성애자들이 참여했으며, 동인협의 명의로 된 전단 1만여 장을 배포하였습니다.

이 투쟁에의 결합은 동성애자들 사이에 다소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동성애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이는 여러 단체들과 단체 성원들의 지지금과

집회 참여로써 확인되었습니다. 1월의 투쟁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동성애자 단체들이 노력해 온 성과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일반인들의 편견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한 한국의 상황에서 거리에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그간 동성애자 단체들이 동성애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는 것과, 정치적 입장을 견지할 만큼 한국 동성애자들이 성숙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2월3일에 동인협 연대투쟁위원회는 LG화재 노동조합 간부들과 노동자 계급과 동성애자들과의 연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고, 노동자 총파업이 마무리되어 가던 3월 11일에는 서울의 연세 대학교에서 그간의 투쟁에 대한 평가와 향후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가한 여러 단체의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이들은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고, 그간의 투쟁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6월 18일에 동인협은 서울 광화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동경의 레즈비언-게이 단체인 OCCUR의 재판투쟁에 대한-이에 대한 설명은 약합니다- 지지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날의 시위는 '우리는 보다 나은 민주적 공동체를 위한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지지한다.' 와 '동경도는 동성애자 차별적 정책을 철폐하라' 등의 주장을 담은 피켓 시위로써, 10여명의 게이-레즈비언들이 참가하였으며, 국내외의 여러 언론들과 대사관 직원의 취재가 있었습니다.

이 날의 시위는 외국의 동성애자들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연대의 표시로써,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갈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뒤이은 6월 28일 동인협은 한국의 중, 고등학교 교과서의 동성애자 차별적 내용의 철폐와 보건복지부의 예

이즈 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가졌습니다. 국내 23개 동성애자 단체에서 100명이 넘게 참여한 이 집회는 국내외의 다수 언론들과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두시간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집회는 문화 공연과, 선언문 낭독과 거리 행진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집회는 문화 비평 저널 '오늘예감', 학부모 연대 대표 '홍성혜' 씨 등 다수의 국내 진보 단체, 언론매체, 저명인사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한국 내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다수의 진보적인 이들에게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23개 동성애자 단체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저력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또한 이는 최초로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라는 가장 큰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의 존재 자체마저 부인하려는 한국의 척박한 상황에서 힘들게 동

성애자들의 권리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 요구되는 것은, 동성애자 단체들 사이의 보다 치밀한 연결망의 구축, 투쟁을 위한 재정의 확보, 그리고 동성애자 대중의 보다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의 충족을 기하면서,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는 앞으로 국내외의 산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꾸준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지면을 빌어 우리는 일본의 동성애자 동지들에게 활발한 교류와 연대를 제안합니다.

동성애자들의 국제적 연대는 향후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믿습니다.

일본 동성애자들의 인권운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동인협은 꾸준히 동성애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1997. 7. 13
동인협 산하 대학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서울시립대 동성애자 모임 대표 양지용 드림

억압에 대해서

억압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동성애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게 해 줄 것이며,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있어서 투쟁의 대상과 연대의 대상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억압이란.

억압이란, 특정집단의 권리를 부당하게 억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억압은 상황에 따라 소외, 편견의 조장, 실제적인 불이익, 혜택에서의 배제 등의 여러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억압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여집니다. 가장 쉬운 예는 우리가 쉽게 주위 사람들에게 커밍아웃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도 아닌, 그렇다고 무언가 잘못된 것도 아닌 우리의 성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그것이 이상하게 비춰지기 때문이고, 이상하게 보도록 만들기 때문이며, 우리의 성적 방향성이 밝혀질 때,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편견은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쉽게 보는 억압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또는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편견이란 터무니없는 근거에 기반한 잘못된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편견이란, 그것이 매우 부당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 방법들에 의해 우리의 의식 속에 너무나 확고히 자리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는 성도착이나, 변태로 치부되며, 또한 에이즈 전염균 정도로 치부됩니다. 사람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혐오를 가지고 있고, 동성애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신경질적으로 일축해 버립니다. 동성애자는 모두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밖에도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은 실로 너무나 다양합니다.

혜택에서의 배제나, 실제적인 불이익은 편견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억압의 형태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체의 비용으로 생활의 많은 부분을 담보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혜택의 많은 부분은 일부일처제를 근거로 한 결혼이라는 이성애적 제도의 가족에게만 주어집니다. 친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가 동성애자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과 함께,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의료보험 혜택에서의 배제, 상속권과 상속세 감면의 혜택에서의 배제, 주택 마련을 위한 각종 혜택에서의 배제, 배우자를 후견할 수 있는 권리에서의 배제 등, 동성애자는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아울러 자신의 성장체성을 깨닫고,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에서 동성애자는 배제되며, 승진 등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실제적인 탄압은 억압의 가장 심각한 형태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동성애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해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동성애자들도 이성애자들과 같이 가족이라는 제도에 편입시켜 달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제도는 동성애자 억압의 기반이며, 따라서 그 안에 우리가 편입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단지 동성애자들이 어떠한 혜택에서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또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된다는 차별의 문제를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요컨대, 이러한 차별의 대안으로 상정해야 할 것은 가족 제도라는 또다른 억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압은 이처럼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면 드러나 보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철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억압에 대해 보다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왜 필요한가.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괜히 싫어하거나 미워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데에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억압에 맞선 싸움을 전개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싸울 대상을 설정하고, 연대의 대상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필수적입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은 앞서 역사에 대해 짚어 보았던 것처럼 19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프리스트'에서 주인공인 신부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멀리 당한 것은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신부가 만약 이성과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는 그가 동성과 그랬을 때보다 상당히 적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무수한 비난을 받은 이유는 그가 순결의 서약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성향을 가졌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중세의 신부였다면 그가 동성과 그런 행위를 하든 이성 과 그러하든 그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컨대 문제는 동성애를 '특별히' 억압하는 데에 있으며,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자본주의이며,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의 많은 부분들도 이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현재 모든 가치들에 우선하여 존재합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재생산을 위해 봉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지 않거나 피해가 되는 것들을 배격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 가족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전통적 가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며, 또한 가족을 꾸린다는 것이 당시의 대부분의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새로운 노동력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노동력의 육체적, 심리적 재생산을 담당해 왔는데, 이제 그 비용을 사회가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확대되었고, 개인들이 생산하는 많은 부분이 이제 개인, 또는 그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로 또는 자본가들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수익을 얻는 이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자본가들은 여전히 가족이 이 모든 비용을 떠안아 주기를 바랬습니다. 스스로 가족을 꾸려 그 유지비용을 모두 담당한다면, 이는 자본의 확대 재생산에 더없는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가족은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교육의 장으로서 이 사회에 순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매우 많은 이

사회의 고정된 '질서'란 것을 배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일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성에 대한 금기를 배우고, 동성애에 대한 직, 간접적인 터부를 습득합니다. 우리는 힘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국가란 것에 대한 믿음을 배웁니다)

그러나 가족이 더 이상 생존에 있어서 필수요소도 아닐뿐더러, 가족을 이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는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이러한 상황은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는지 모릅니다.

가족은 왜 동성애자를 억압하게 만드는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가족을 구성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일종의 노예로써 종속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남성도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일들에 자신의 수입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은 이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성폭력, 폭력 그리고 살인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심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관계에서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는 것들이 쉽게 묵인되곤 합니다) 구성원들에게 권력적 불평등이 있을 때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받게 될 이익이 아닌 것들을 애써 자신의 적은 수입을 쪼개어 담당한다는 것, 원하지 않는 이와-물론 처음에는 원했는지 모르지만- 영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등은 결코 사람들이 그냥 선택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

의 경우에만 한정지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판단에만 치우칠 수도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가족이 결코 자유로운 공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커밍아웃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커밍아웃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가족이 전체 사회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요컨대 현재의 사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강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가족에 대한 강요가 동성애자를 억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성애적 일부일치의 결혼제도를 근거로 한, 이 사회의 가족의 구성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가 가족을 이룰 때에만 주는 많은 혜택들에서 배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데에는, 각종 의식적인 부분의 교육과 개조가 필요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처벌 또는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복한 가족이라는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많은 관계들에 있어서의 교육에 의해 그것은 형성되고 세뇌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가족은 실제로 가장 불행하고, 벗어나고 싶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가족에 대한 완고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환상의 주입과 아울러, 우리는 가족이라는 틀을 구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또는 이러한 틀을 애써 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도록 교육됩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는 미혼모, 독신자, 이혼한 사람 등과 더불어 무언가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되며, 이들에게는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명예, 또는 혜택이 박탈됩니다.

둘째, 가족은 성역할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 효율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회는 가족 안에서의 '적절한'

성역할을 강조하고, 이에 위배되는 이들을 이상한 이들로 몰거나,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여성과 남성이 정해진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가족이란 정해진 방향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성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부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대전 당시의 상황이 그랬지요. (당시는 남성들이 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이상형은 현모양처이며, 이 사회는 여성들의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사회를 보수화 시킬 필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여성을 가족의 천사로 미화시킵니다.

동성애자들은 기존의 성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모두 남성답다거나, 여성 동성애자들이 모두 여성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동성애 커플에게서는 성행위에서의 역할 구분 이외에 이러한 역할 구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역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의 성역할을 강요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셋째, 가족을 만들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적 순종에 대한 강요와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의 조장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구성원들이 정해진 배타적인 성적 관계를 맺을 때에만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어겼을 때에는 엄청난 비난과 처벌이 뒤따릅니다. 근친상간이나, 혼외 성관계를 우리가 심지어 '본능적'으로 거부하도록 교육받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가족은 영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낭만적 사랑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많은 이들이 환상을 가지고 뛰어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강요할 때에, 동성애자들은 역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에 관해 만들어진 관념들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 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적 순종의 제도가 없다는 것은 성적

자유권을 행사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은 적절한 표적이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성적 환상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혼 제도 외부에서의 관계들을 폄하시키고, 성을 신비화시키거나, 또는 더러운 것으로 매도하거나, 이성애자 이외의 성적 소수 집단들을 변태로 규정짓고, 이들을 공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넷째, 기술한 것과 같이 가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구성할 때에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현재 이 사회에서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은 이성애 가족에게만 주어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회는 단지 가족을 이룬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사회가 담당해야 할 비용의 매우 많은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혜택이란 가족이 이 사회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인 가족을 이룬다 하더라도 기존의 혜택들이 그대로 주어지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동성애자들이 어렵게 가족제도 안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이 사회는 공격의 대상이 필요할 때에 언제나 그것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므로, 이는 매우 위태로운 성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수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지탱됩니다. 상황에 따라 이 사회는 공격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동성애자는 그 주요 대상이 되어 왔고, 우리가 철저히 투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동성애자 억압의 원인은 위에서 말한 것들만이 아닐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인식이 과대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동성애자 억압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그를 바탕으로 한 투쟁을 전개할 때에만, 우리의 모든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도서 목록 (가나다 순)

-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엥겔스. 김대웅 역. 아침. 1985
낭만적 사랑과 사회. 재클린 살스비. 박찬길 역. 민음사. 1985
누가 성적정학을 두려워하라. 서동진. 문예미당. 1996.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노라 칼린. 심인숙 역. 책갈피. 1995.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심인숙 역. 책갈피. 1995.
드러내기를 중심으로 본 동성애자의 정신 건강 특성. 이수진.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성의 정치학. 케이트 밀레트. 정의숙, 조정호 공역. 현대사상사. 1984성과 이성. 리차드 포스터. 팽인숙 역. 동아출판사. 1993
성심리학. 유가현. 성원사. 1990.
섹스북. 권터 아멘트. 이용숙 역. 박영물 출판사. 1995.
섹스 사이언스. 이시하마 아츠미. 전파과학사. 1987
섹스, 포르노, 에로티즘: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 김진송, 김수기, 서동진 외. 현실문화연구. 1994.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제프리 워스. 서동진, 채규형 공역. 현실문화연구. 1994.
성의 역사. 제1권. 앞의 의지. 이규현 역. 제2권. 쾌락의 활용. 문경자, 신은영 공역. 제3권. 자기에의 배려. 이혜숙, 이영목 공역. 미셀 푸코. 나남출판. 1990.
여성학강의. 한국여성연구회. 동녘. 1991.
우리 유전자 안에는 없다. 이상원 역 한울 1993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엘리 자레스키. 김정희 역 한미당. 1983최신 킨제이 리포트. J.M. 라이니쉬, R. 비즐리 공저. 하서. 1992
플라톤의 대화. 소크라테스. 최명관 역. 종로서적. 1981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역. 새물결. 1996
The Gay 100. 폴 러셀. 이현숙 역. 사회평론. 1996.

기존의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회의와, 동성애자로서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동성애자가 자유로워질 때, 모든 이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동인 설립 발의문

수신 : 준비위원

발신 : 양지용

제목 : (가칭) 범대학동성애자인권단체의 건설

일자 : 1997. 9. 8.

1.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모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대학은 동성애자들이 활동을 전개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들 중 하나입니다. 대학에서의 언론은 대체적으로 열려 있으며, 커밍아웃에 대한 공적인 제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학 내에서 동성애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재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매우 좋은 투쟁의 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가장 좋은 활동가 양성의 장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며,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즉 우리의 경우에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최대한의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부분에 최대한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어떠한 모범적인 틀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대학에서 동성애자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대중의 지지 없이 개인 위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활동 역시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각 대학 모임들은 서로 별다른 유기적 관계를 갖지 않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각 모임들은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지 않았고, 따라서 그 활동은 필연적으로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의 전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을 전개할 때 우리는 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각 대학 내에서 동성애자들의 연결망을 확고히 해야 하며, 정치적인 방향을 견지해야 합니다. 연결망을 확고히 한다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친목까지를 담보해 낸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방향을 견지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성애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이고, 아울러 친목만을 강조할 때 올 수 있는 문제점들-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의 소외의 문제를 비롯한 내부에서 성적 폐쇄와 억압을 재생산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4. 대학이라는 공통된 공간에서 활동을 전개할 때 우리는 하나의 조직 아래에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각 대학은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 대학들의 상황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차가 각 대학 별로 활동을 전개해야 할만큼 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통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통된 활동을 전개할 때, 개별 대학이 담당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대학에서 같은 활동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을 하나의 틀을 만들어 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함께 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대학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더욱 큰 힘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의 조직에서 활동을 전개할 때, 개별 대학에서의 연결망의 건설 역시 수월해질 것입니다.

5. 위의 이유들을 바탕으로 범대학동성애자인권단체(가칭)의 건설을 제안합니다.

동성애자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고, 또한 이를 가지고 토론을 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성애자의 삶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거나, 자신의 상상력에 의존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할 것이지만, 함께 고민해 본다면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커밍아웃, 가족, 친구

커밍아웃이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긍정하고 이를 타인에게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커밍아웃은 동성애자가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며, 이는 동성애자 자신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물론 커밍아웃은 많이 이루어질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자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나, 동성애자 전체를 위해서나 매우 좋은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자 자신이 지금까지 철저히 이성애자로서 살아 왔기 때문에 커밍아웃이 꺼려지거나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커밍아웃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정서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커밍아웃이란 것이 분명 필요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불리 커밍아웃하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커밍아웃이란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작은 부분에서 개인의 희생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커밍아웃을 했을 때 주어지는 불이익이나 소외를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것은 우리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우리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가족들은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대부분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가족이 정서적으로 매우 밀접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에 대한 커밍아웃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소외될 것을 걱정하기도 하겠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중 몇몇이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다면, 과감히 그 친구를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성애자로서 사회에 순응하며 사는 것보다는 매우 힘든 것입니다. 동성애자에게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고, 또한 현재로서는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도 제대로 있지 않으니깐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주위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동성애자 친구들을 계속 사귀어 가는 것입니다.

파트너와 동성애 가족을 이루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속적인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배타적인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동성

애자 커플을 구속할 제도적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며 물론,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새로이 만들어 동성애자 커플을 묶어두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나, 파트너를 위해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다 올바른 방법은 동성애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의 조직과, 그 안에서의 열린 파트너 관계일 것입니다.

성적 순결, 낭만적 사랑, 파트너와 함께

성적인 순결, 또는 순종은 오랫동안 내려온 사상입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반인 가족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고, 또한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가족의 유지에 있어서 성적 순결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자상속에 기반한 사유재산의 유지와 자본의 계승 확대에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성적 순종의 제도는 이성애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일부일처 가족제도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허위의식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순결 이데올로기라 부릅니다. 여기서 순결이란, 일부일처제의 결혼 안에서 제외된 모든 성적 관계를 배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순결 이데올로기는 이 사회의 모든 이의 성적 자율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는 동성애자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강화하고,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동성애자는 파트너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도 비난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자정(?)을 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앞서 그것이 과연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성적으로 자유로운 이들에 대한 공격이 결국에는 동성애자 전반에 대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반순결주의란 바로 이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반순결주의란 동성애자 억압의 기반인 가족제도의 유지를 위해 봉사하는 순결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활에서 파트너에 대한 성적 인순종을 강요하지 않고, 영속적인 관계를 강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컨대, 반순결주의는 파트너에 대한 예의를 저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순결 이데올로기라는 억압의 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이고, 아울러 배타적인 성적 관계를 배격하고, 상대와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 열린 파트너십을 맺어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로서만 교육되어 왔습니다. 이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의 모델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동성애자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또는 자신을 억압하게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결주의는 이성애자들을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다른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동성애자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상황이 동성애자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낭만적 사랑은 성적 순결의식과 맞물려 존재합니다. 그것은 파트너에 대한 영속적이고 맹목적이며, 배타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가족의 구성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도 될 때부터 이러한 관념은 생겨났습니다. 가족을 구성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때에는 낭만적 사랑이란,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과거의 신화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낭만적) 사랑을 한순간의 꿈으로 그려내고, 결국 이러한 사랑이 파멸로 치닫는 것을 보여준 것은 바로 낭만적 사랑에 대한 경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 낭만적 사랑은 끊임없이 유포되기

시작했고,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의 뇌리 속에 너무나 확고히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낭만적 사랑의 최대 목표는 공인된 영속적 관계인 결혼으로 생각되기 시작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심지어 우리 동성애자들에게까지 하나의 이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낭만적 사랑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생각입니다. 관념이란 것은 어떠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낭만적 사랑이라는 관념은 성적 순종을 강요하고, 파트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강요를 만들어 냅니다.

낭만적 사랑은 일종의 관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조작되어 유포되는 '진실' 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자리, 우리가 그 동안 낭만적 사랑이라는 관념으로 채워왔던 그 자리를 메워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아마도 '우애'나 '친밀감'이라는 것들이 적합할 것입니다.

위의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파트너와 괴롭지 않게, 그리고 파트너를 괴롭히지 않고 사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파트너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보다 많은 예의와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파트너에 대해 지금까지의 제도적 관습에 의한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파트너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열린 관계란 자신과 파트너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필요는 있지만,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그 노력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역할의 구분

동성애자들의 성행위에서의 역할은 완전히 구분되어 지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고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많은 수는 양쪽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팸과 부치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원래 레즈비언들의

스타일에 대한 용어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성행위에서의 역할을 구분 짓는 말로써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이들 사이에서는 (어원을 알기 힘든) 마자와 떼자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이성애적인 모델을 상정해서가 아닌, 단순한 개인적인 선호에 따른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전혀 문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단순한 성행위에서의 선호에 따른 역할 구분으로 쓰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발생 합니다.

때로는 동성애자 내에서의 성행위의 역할 구분이 이성애자들 사이에서처럼 남성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성대 여성으로 자신들을 규정짓고, 그에 따라 여성이라 생각되는 역할을 하는 이가 능동적인 성의 주체로서 서는 것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스스로 그러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남성역인 이가 자신을 파트너보다 우위에 두고 생각한다거나, 일종의 멸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원인은 이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지 않은 것과, 동성애자가 이성애 관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요컨대, 선호에 의한 성행위에서의 역할 구분은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구분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우리를 규정짓는다면, 파트너와 또다른 권력관계를 만드는 데에 쓰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억지로 여성스러워지려고 한다거나 남성스러워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녀라는 성별이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며, 동성애라는 성향이 여성을 남성답게 하거나, 남성을 여성답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는 것은 교육과 (성별과 성향에 관계없는) 개인적 선호에 의해서입니다. 모든 이가 그러해야 하겠지만 특히, 동성애자들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행위, Hot sex, Safe sex

성행위란 정의 내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개인에 따라 오럴섹스를 성행위라 하기도 하고, 페팅-물론 페팅에 대한 정의도 매우 다양하지만-을 성행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게이들은 애널섹스(항문성교)만을 성행위라고 규정짓습니다. 말하자면, 성행위를 규정짓는다는 것은 자신에게만 유효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성행위의 개념인 '오르가즘에 이르기 위한 모든 행위들'을 성행위라 정의 내리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성행위에 대한 기존의 정의에서 탈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성행위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스스로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레즈비언들은 원하지도 않으면서, 질에 손가락을 넣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어떤 게이들은 원하지도 않는 항문 성교를 고통스럽게 '즐거워' 할 것입니다. 왜곡된 이성애적 성행위의 모델을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성행위가 있습니다. 이성애의 성행위가, 심지어 이성애자들조차 모두 좋아하는 것은 아닌 성행위가 동성애자들의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행위를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오르가즘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자신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에 대해 매우 적은 교육, 그것도 '생명의 신비' 따위의 내용만을 배웠기 때문이고, 또한 그 밖의 정보들은 매우 관념적인 '신념'이나, 왜곡된 사실들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르가즘에 대한 판단은 정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하는 것입니다. 성행위에 있어서 정신적 교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념에 근거한 오르가즘은 성행위를 즐거움의 대상이 아닌 의무와 의식의 대상으로 묶어 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오르가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념적 오르가즘이라는 환상에서의 탈피입니다.

둘째, 성행위라는 것에 대한 의식적인 두려움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행위를 무언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 성행위들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해 왔고, '완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관계들을 배제시키거나 평가절하하도록 만들었으며, 파트너와의 성행위를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행위는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다양한 매개들 중의 하나일 뿐이며, 따라서 그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상대방과 원하는 행위를 조율하고, 현재의 성행위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행위에 있어서도 대화는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오해와 불만족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성행위를 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거부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애정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안전한 성행위(safe sex)라는 것을 포함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체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성행위에 있어서의 두려움을 상당 부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성행위는 모든 성행위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입니다. 안전한 성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감염되거나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은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유방암과 매독 기타의 성병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고정된 파트너가 있을 때, 안전한 성행위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안전한 성행위는 필요합니다. 각종 질병들은 신뢰가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행위를 매개로 하는 병들은 상대가 몇 명이나, 어떤

한 사람이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한 성행위를 했느냐에 관계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에이즈라는 마녀사냥의 도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즈는 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는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저주를 퍼붓기 위해, 열심히 동성애자를 찾아내, 동성애자만에게만 선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동성애적 성행위와 에이즈가 무관하다는 판단을 한 후, 다 나아가 에이즈라는 것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숙지하고, 이를 역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에이즈란 것은 우리에게 또다른 좋은 사회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IDS와 HIV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HIV에 감염되었다 해서 에이즈가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발병했다 하더라도 모두 사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HIV 감염자들에 대한 배려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HIV 감염자들을 보호하고, 이들과 연대함으로써, 에이즈에 대한 투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이로서의 남성, 레즈비언으로서의 여성

지금까지 레즈비언은 '여성'으로 살아 왔고, 게이는 '남성'으로서 살아 왔습니다. 이는 게이와 이성애 남성의 권력적인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레즈비언이 전통적 여성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게이들이 여성을, 그리고 레즈비언을 억압할 수 있다는 것과, 레즈비언들이 스스로를 여성이라는 틀 안에 자신을 가두어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게이들은 이성애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게이들이 철저히 이성애자로 위장하고 산다면,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동성애자로서가 아니라 이성애자로서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레즈비언들은 이성애적 제도에 근거한 여성다움의 강요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여성임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만들어진 여성다움을 답습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레즈비언들이 자유로워지지 않을 때, 게이들 또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레즈비언들과 게이들은 함께 투쟁할 때에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동인은 게이와 레즈비언이 함께 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에서의 소외와 억압이 재생산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 인권운동

앞서 말했듯이 동성애자들에게는 사회적 혜택들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복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복지에 대한 대책으로 저축을 하거나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다소 근시안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대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복지라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대책은 각종 사회적 혜택을 얻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소수만을 위한 해결책이 아닌 동

성애자 전반을 위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한 운동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당당하게 하기 위한 운동이고, 우리의 사랑을 당당하게 하기 위한 운동이며, 우리를 향한 모든 편견과 억압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대한 싸움입니다.

동성애자로서 자신에 대한 억압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지지하고, 그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움직임들을 통해서만 동성애자의 모든 권리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매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운동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활동에 실질적인 참여나 후원으로 지지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끝으로

동성애자로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항상 모든 가능한 일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에 동성애자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준비들 중의 하나입니다.

분리주의에 대하여

현재, 동성애자의 단체들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분리주의적인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단체가 레즈비언과 게이가 함께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분리주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동성애자 인권운동 내부에서 분리주의에 대한 견해들입니다.

김지혜) 어떠한 주체도 동일한 이해, 동질적 주체일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동질적인 주체를 상정할 수는 없죠. 동성애자 역시 계급과 인종과 성별 등 다양한 권력 변수가 교차하는 지배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운동 사이에서의 다양한 이해의 충돌과 해결 역시 사회적 맥락과 운동내의 과정적 상황에 유동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관념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활동이 진행되는가에 따라 각 주체들은 분명히 과감하게 분리주의적 입장을 취해야하며 그것이야말로 소수자의 정치학을 의미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김지혜씨는 여성동성애자 인권단체인 '끼리끼리'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석민) 역사적으로 지배자들은 항상 피지배계층을 이간질 내지는 분리시켜 지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노동자일지라도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현장노동자식으로) 우선 동성애자 해방운동이 동성애자 인권운동 자체만을 즉, 부문운동만을 고집한다면 게이해방과 더불어 동성애자 인권도 요원하다고 봅니다.

여성 해방과 동성애자 해방을 따로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 인권운동 자체의 다원화는 동성애자 해방의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성애자들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관점과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해도 그 조직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분리주의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기에... (윤석민씨는 남성동성애자 인권단체인 '친구사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멋진바람) 분명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운동의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상충되는 입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운동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입장이 똑같이 함께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함께 해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잘 절충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나는 지금의 모습이 그다지 분리주의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멋진바람님은 통신 나누우리의 동성애자 모임인 '레인보우'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양지용) 분리주의란, 사안별로 연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주의는 목적이 일치하지 않거나, 내부에서 권력적 불평등이 있을 때에 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편의를 위한 활동의 분리와는 다릅니다.

동성애자는 절대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97년초 노동자 총파업에 동인협 연대투쟁위원회가 결합했을 때, 이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총파업을 지지하는 동성애자가 있었던 반면, 그를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동성애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자인 동성애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동성애자들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사안별로는, 예를 들면 공론의 심의기준의 개정이나 교과서의 개정 등과 같은 일들, 연대할 수 있겠지만은요.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라 몽둥그러진 사람들 내부에서도 또다른 억압과 소외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여성과 레즈비언을 폄하하는 발언과 행위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부류들은 실제로 이익이 같지 않거나 심지어는 상충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류들은 '자체 정화'와 '고결한 배제'로써, 자신의 아주 적은 억압에 대한 방어를 하고, 어떤 부류들은 그러한 정화와 배제를 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와 권력에 따라 억압의 정도와 방법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다름' 들 속에서 분리주의란 필연적일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안별 연대라든 한다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연대란 것은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동일한 이익을 지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각 단체들이 분리주의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총체적인 연대는 매우 요원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이익에 따른 분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분화된 이익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게이이거나, 레즈비언이라는 객관적 상황에 근거한 편가르기가 아닌, 이익과 정치적 입장의 동일함에 초점을 맞춘 총체적 연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연대의 강요나, 편가르기식의 분리가 아니라, 이익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연대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레즈비언과 게이가 함께 활동하는 이유는, 아니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내부에서의 소외와 억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고,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동일한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분리주의에 대하여

20세기 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의 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킨제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들이며, 정확히 말하자면 조사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에 대해 가장 신뢰할만한 자료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킨제이의 연구 결과들은 그가 별다른 목적이 없이 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사실들을 밝혀냄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인식을 가져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는 킨제이 연구소의 최근 연구 결과들 중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을 발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질의응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성애는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아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동성애의 부모에게서 자라나 아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이성애 부모에게서 자란 자식 이상으로 그들이 동성애자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의 방향성이 성장기 초기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동성애의 성행위와 이성애의 성행위의 유일한 차이는 동성애의 많은 사람은 페니스와 질의 성교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통속적인 조항된 얘기와는 달리 모든 동성애의 남성이 항문 성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이라는 말의 용법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성애는 이상이나 별 장애가 아니다. 젊었을 때에 유혹되어 동성애가 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는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에게)
당신은 아들에 대한 감정을 진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그의 정신 건강에 대해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데는 근거가 없는 것 같다. 동성애의 사람들도 행복하며 정신적 생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사실 그렇다는 것을 최근의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미국심리학회와 미국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어떤 동성애의 방향성도 정신장애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 자신의 성적방향성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치료를 요한다. 유능한 치료사는 환자와 함께 불행의 근원을 찾아 노력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그 불행은 가족의 거절이나 사회의 반응이 만들어낸 스트레스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행복한가 어떤가, 자신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파트너의 성별이 어느 쪽이나 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동성애 커플의) HIV 감염의 위험성은 이성애의 경우보다 높은 것은 아니다. 당신들의 한 쪽이 HIV에 감염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성행위를 하건 감염되지 않는다.

*반동성애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은 개인적으로 어떤 동성애의 인간도 모르며 동성애의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친구를 가지고 있고 교육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으며, 지주 교회에 가며 적절한 성적 역할

에 대해서 완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고도로 권위주의적이라는 점에 귀착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명백한 이성애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목을 종종 공연하며 이성애의 인간으로서 취급받기를 바라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성애자이기를 기대한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식화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즉 동성애자와의 교류 및 동성애가 이성애의 성적 역할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지식의 보급, 성의 방향성이 동성애의 인간과 접촉함으로써 '감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정보의 제공, 그리고 동성애자는 이성애자보다도 타인을 강간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흥미를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의 재확인 등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최신 킨제이 리포트. J. M. 라이니쉬, R. 비즐리 공저. 이영식 역. 하서, 1992) 에서 발췌.

대동인은 모든 대학의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희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이하 대동인)은 9월 8일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건설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두달여의 준비 작업을 한 후, 11월 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각 단체 대표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발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대동인은 전국 10여개의 대학이 지부형식으로 소속된 중앙조직입니다. 대동인의 목적은 대학이라는 공간에 동성애자들의 연결망 또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동인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활동방향을 두 가지로 좁혀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활동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짜 이제 막 커뮤니티에 발 딛은 성적소수자들을 교육함으로써 자긍심을 기려 주는 것입니다. 이는 여타의 단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대동인은 좀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부의 내재적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중앙에 예속되지 않은 자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지부의 활동방향과 교육, 홍보 등의 문제를 수월하게 돕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려합니다.

대동인은 대학생들이 새로 태어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모든 이들의 생활 터전이며 배움터입니다.

대동인에 소속되지 않은 학교의 모임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 함께 일하고 생활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세요. 개인이 하기에 너무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는 대동인에 잠시 얼굴을 보여주세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대동인의 지부를 신설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대동인은 지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대동인은 연중무휴로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연락처: 217-0609 상근 시간은 매일 오후 7-10시입니다.(휴일 없음)
서울특별시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97호 110-600

이 자리는 대동인의 노래가 들어갈 자리였습니다.

곡은 지어져 있는데, 가사가 정해지지 않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호 소식지에는 기필코 멋진 노래를 만들어 실어 봅시다.

마크와 포스터를 만드신 홍익대학교의 임서희씨와

거의 대부분의 원고를 집필하신 양지용씨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호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의 소식지를 펴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